

경제

광주·전남 법인세 2700억 감소

작년 경기침체·영업이익 급감 탓

현대삼호重·남양·금호타이어 '0'

광주·전남 올 법인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2천7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 광주·전남 지역 법인세 징수대상 법인 4만여곳에 대한 세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지난해 총 법인세수 9천억원 보다 30%(2천700억원) 줄어든 6천300억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경제위기로 기업들의 경영사정이 악화하면서 올해 아예 한푼도 내지 못하는 법인으로 속출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900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으나, 경영수지 악화로 올해 법인세가 0원이었으며, 지난해 30억원을 납부한 남양건설도 올해는 내야할 법인세가 없었다.

기업세를 납부한 기업들의 세액도 급감했다. 금호산업은 2009년 2조6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로 지난해 8월 가납부한 500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환수받았다.

삼성광주전자도 70억원 원을 납부했으나, 올해 10억원을 돌려받았다.

우미건설은 지난해 165억원에서 올해 110여억원을 법인세로 신고했다.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으나, 경영수지 악화로 올해 법인세가 0원이었으며, 지난해 30억원을 납부한 남양건설도 올해는 내야할 법인세가 없었다.

기업세를 납부한 기업들의 세액도 급감했다. 금호산업은 2009년 2조6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로 지난해 8월 가납부한 500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환수받았다.

삼성광주전자도 70억원 원을 납부했으나, 올해 10억원을 돌려받았다.

우미건설은 지난해 165억원에서 올해 110여억원을 법인세로 신고했다.

다.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광주은행은 재무자인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단체협약에 다시 합의하면서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 재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채권단이 최후 통첩한 노사 합의 및 동사의 재무개선 20일 불응 불응이 이를 앞두고 이뤄진 극적 합의다. 이날 노사가 전격 합의한 재합의안의 골자는 지난해 합의한 상여금 200% 반납을, 올해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리해고 문제는 '유보'에서 '철회'로 바뀌었다. 해고자 복직도 '취업규칙 등 준수 확인'이 개별 제출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노사가 전격 합의한 재합의안의 골자는 지난해 합의한 상여금 200% 반납을, 올해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光銀 소호명가 270호점 '엘도라도 리조트'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신안 증도에 있는 엘도라도 리조트(회장 김흥중)를 소호명가(所湖名家) 270호점으로 선정(사진)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엘도라도 리조트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고려한 입지 조건, 해수욕장, 해수욕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다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엘도라도 리조트는 대출 및 예금, 신용카드, 각종 수수료 우대 등 금융종합서비스를 광주은행으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중소 청년인턴 모집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염홍섭)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과 채용 기업을 모집한다.

청년인턴 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상 29세 미만(군필자는 만 31세 미만)이지만 대학 재학생은 제외된다. 간혹 자영업자, 사회복자 등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유관 일자리 취업은 안 된다.

문의 062-654-3425~8.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해고' 등 최악 시나리오 피해 워크아웃 재개 가능성 청신호

금호타이어 재협상 타결 의미와 전망

21일 노조 통과된 자금 지원 등 순조

금호타이어 노사가 18일 임금 및 단체협약에 다시 합의하면서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 재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노사가 전격 합의한 재합의안의 골자는 지난해 합의한 상여금 200% 반납을, 올해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리해고 문제는 '유보'에서 '철회'로 바뀌었다. 해고자 복직도 '취업규칙 등 준수 확인'이 개별 제출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노사가 전격 합의한 재합의안의 골자는 지난해 합의한 상여금 200% 반납을, 올해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리해고 문제는 '유보'에서 '철회'로 바뀌었다. 해고자 복직도 '취업규칙 등 준수 확인'이 개별 제출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금호가 형성돼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경제계, 협력업체들도 재합의를 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양건설, 새한철강 법정관리 신청 등 지역 경제계가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호타이어의 노사협상 타결은 지역경제 회생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채권단의 긴급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원재료 수급도 원활해지면서 일부 중단됐던 공장 가동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노사 재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달 22일 채권단이 요구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사가 전격 합의한 재합의안의 골자는 지난해 합의한 상여금 200% 반납을, 올해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는 재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달 22일 채권단이 요구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은 재개돼 회생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노사가 전격 합의한 재합의안의 골자는 지난해 합의한 상여금 200% 반납을, 올해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 재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달 22일 채권단이 요구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사가 전격 합의한 재합의안의 골자는 지난해 합의한 상여금 200% 반납을, 올해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기아차 월드컵 축구 16강 진출 기원 한다

16명 시승단 두달간 전국 로드쇼



기아자동차는 우리나라 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원하기 위한 시승단을 구성, 운영한다.

시승단은 16명의 참가자가 포르테 W와 쏘울 각 8대를 타고 앞으로 두 달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16만 km 주행을 도전하는 로드쇼를 펼친다.

기아차는 차량별로 1만km 초과 주행 시 초과된 1km당 1천원씩을 적립해 축구발전기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기아차는 SK텔레콤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약 3주간 양사 홈페이지 쿼즈 이벤트를 통해 시승단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약 3만 명의 응모자 중 최종 16명을 선발했다.

전남 서울 압구정 국내영업본부에서 발대식(사진)을 갖고 출발한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 기원 시

시승단은 16명의 참가자가 포르테 W와 쏘울 각 8대를 타고 앞으로 두 달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16만 km 주행을 도전하는 로드쇼를 펼친다.

기아차는 차량별로 1만km 초과 주행 시 초과된 1km당 1천원씩을 적립해 축구발전기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기아차는 SK텔레콤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약 3주간 양사 홈페이지 쿼즈 이벤트를 통해 시승단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약 3만 명의 응모자 중 최종 16명을 선발했다.

전남 서울 압구정 국내영업본부에서 발대식(사진)을 갖고 출발한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 기원 시

목포대 해상풍력센터 리모델링

지문인식 전자입찰 첫 낙찰자 선정

광주지방조달청은 지문인식 전자입찰 방식을 통한 첫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불법 전자입찰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문인식 전자입찰 방식은 입찰대

상풍력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실시, 참여한 6개사 중 (주)전진산업개발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조달청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제도는 이달 1일 입찰 공고일부터 적용되는 조달청 집행 시설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6개사 중 (주)전진산업개발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지문인식 전자입찰 방식은 입찰대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토지매매

토지매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에셋코리아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토지매매

토지매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에셋코리아